데스크 시각

가진자의 양보

홍 행 기
정치부장

'세대 간 소통 단절과 갈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 각종 정치·사회 현안을 둘러싸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 간 소통의 부재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천안함 폭침,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침몰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편이 갈려 서로 의심하고 비난해 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치·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빚어졌던 세대 간 마찰과 대립은 의견의 차이일 뿐 서로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충돌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낮게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현안은 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 세대들에게도 일자리는 곧 '인간다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삶 만드는 일자리

이 같은 차원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임금제도 개편과 노동개혁 문제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움직임을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청년들의 삶과 미래, 더 나아가 사회 건전성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합의가 최선이며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온갖 장애물을 넘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최소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가진 자들의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공식화되고 또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아들·딸·조카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자신들의 월급을 일부나마 양보하려는 모습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 영역에서야 양보가 쉽게 이뤄질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민간 영역에서는 자신의 임금을 줄여 절약한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 지역에서도 한 달째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임금 감소를

사회적 동의와 배려 필요

우려, 사 측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와 노조는 협상을 통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가 14일 노사정 대타협안을 수용하면서 노동시장에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타협안에 대한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지만, 개혁이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가진 자의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먼저 대형 사업장인 대기업 노조와 금융노조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선 제조 부문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 나누기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누가 누구의 일자리를 뺏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 또는 조건'이라는 사회적 동의 또는 합의가 만들어지고 확산돼야 한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모두가 찬성하는 최선의 방안은 아닐지라도, 지난 수십 년간 왜곡되어 온 노동 및 임금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이다. 청년세대가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으려면, 중·장년 세대가 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으려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고용 주체와 근로자들의 진정성이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등화가친, 책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燈火可親〉

심 명 섭
전남대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장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니 이젠 본격적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듯하다. 특히나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 뒤끝이라 벌써 쾌적한 기온과 청명한 날씨가 더할 수 없이 상쾌하다. 이처럼 가을은, 자연에게는 결실이라는 풍요로운 선물을 주고, 사람에게는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한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흔히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그렇다 등화가친, 독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 활동이다. 모든 문명과 문화는 독서에서 비롯되었으니 말이다. 다만, 이 아름다운 인간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자만이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고 또 책을 읽고서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는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쳐다보고 있는 것만도 못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독서법은 아주 중요한 교육과정이 된다.

독서 생활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까지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는 책은 없지 않느냐? 우리는 독서를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와 감동을 얻어서 개인의 생활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독서가 우리 실생활의 등불이 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Reader는 Leader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리더라는 이야기다. 이 말은 너무 많이 보고 들어서 이제는 식상하기도 하다. 어떨 땐,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다. 그런데 따져들면 그 말은 옳은 말이요, 비켜갈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일종의 올바른 독서법 같은 것을 Leader들의 목적 있는 독서 습관을 통해 먼저 터득할 필요가 있다.

성공한 리더들은 독서를 습관적으로 한다. 경영의 달인이라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지식근로자가 학습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식은 빨리 변한다, 오늘 확실했던 것이, 내일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야 말로 지식의 본질이다. 새로운 조직사회에서 어떤 한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은 4년에서 5년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모두 진부하게 되어 버려서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만다."

독서 습관을 기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를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독서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힐은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에서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진보가 없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은 길이 아무리 험해도 꾸준히 앞으로 전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독서가 습관화 될 수 있을까? 먼저 독서는 학습이라는 생각을 해보자. 오늘날 직장인들은 끊임없이 학습을 하도록 권고를 받는다. 경영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직장 내에서 학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학습을 위한 독서, 이것이 바로 목적을 가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독서 습관화의 첩경이다.

다음으로, 성공한 리더들은 독서가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부하에게 일방적 명령이나 지시보다 이해하고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그러다보니 부하는 주어진 일에 대하여 더러 상급자에게 묻는 수가 있지만 목적 있는 독서를 통하여 가장 많이 해결한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던 할리푸리드나 토목공학을 전공한 홈피터스가 졸업 후에 경영에 성공한 리더가 된 것도 독서를 통하여 그렇게 변신한 경우다.

생각해보면 내가 만난 수많은 스승들 가운데 책처럼 위대한 스승은 없었다. 치열한 경쟁적인 삶속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었을 때 한 권의 책은 어둠속에서 발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자 나침반이었다.

이처럼 책 속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에게나 뚫려 있는 길이 아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에너지밸리사업의 성공조건

전 광 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세계경제의 추세가 저성장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지역까지 침투한 경제 저성장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숨어있는 성장 잠재력을 발굴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별 지역 총생산(GRDP)의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충남지역은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전남은 연평균 12.3%의 성장률을 보였다. 광주 역시 2.7%로 전국평균(2.83%)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들이 저성장이라는 악조건에서 미래의 먹을거리가 될 만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고민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광주와 전남은 한국전력 본사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이 '구세주'와 같은 존재로 느껴질 것이다. 그동안 공들여 추진한 광(光)산업이나 백색 가전과 같은 사업에서 성과를 보지 못했으니 말이다.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에너지밸리사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고, 이에 상응한 혁신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 약화된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타 시·도와의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산업정책은 경제성장 및 고용에서 제조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수평적 산업정책을 기조로 한다. 또 첨단기술과 미래산업에 대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펼쳐 자국 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위기 시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한 대응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의 신(新)성장거점 만들기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측면이 강하다.

에너지밸리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광주·전남의 여건과 특성, 지역리더그룹의 발전전략을 연구해 지역의 산업, 기업, 인재, 혁신자원 등과 연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광주·전남의 대표산업인 자동차 산업 외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적 접근과정이 필요하다. 즉, 지역경제의 주체와 정책 담당자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시장수요를 면밀히 파악, 산업주체의 역량을 정확히 판단해 지역산업의 육성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현행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능적·공간적 측면에서 대부분 중앙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나, 에너지밸리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자율적인 행정과 재정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체적인 재원확보 규모가 커질수록 에너지밸리 사업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셋째, 에너지밸리 사업은 광주와 전남이 중복·과잉투자를 하면서 경쟁적으로 매달릴 사업이 아니다. 우선 광주시의 경우 남구에 전기연구원 광주분원과 한전과 관련된 250개의 협력기업 유치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132만㎡ 규모의 첨단산업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330만㎡규모의 에너지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500여개의 에너지기업을 유치한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하지만, 한전 협력업체는 180여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스마트 검침과 원격 그리드 등 기술발달에 따라 협력업체의 역할과 규모도 점차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산업단지에 아파트만 들어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단 조성방식을 바꿔야 한다. 즉,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찾는것이다.

넷째, 에너지밸리 산업의 파급효과와 연계효과를 중시해 지역단위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성장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산업혁신 인프라와 지역단위의 산학연계 프로그램 강화에 중점을 둔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밸리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목표를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에너지밸리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일자리와 고용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일자리의 양적 지표뿐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社 說

화상경마장 주차난 광주마사회가 나서야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만 되면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 화상경마장 주변 주차장 증설이 시급하다. 그러나 교통 혼잡의 원인 제공자인 광주 마사회 측은 주민 불편 해소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화상경마장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30억 원(국비 15억·시비 7.5억·구비 7.5억)을 들여 공용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동구는 오는 10월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 초에 곧바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 바로 맞은 편인 계림 8구역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부지로 확정되면서 주변 땅값이 50~70%가량 치솟는 바람에 손을 놓고 있다. 결국 동구는 최초 예산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해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광주마사회 측에 지난 4월과 5월 각각 7억5000만 원과 30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마사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미 362면의 법정 주차 면적을 갖추고 있어 당장 거들기 어렵다"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구는 이를 사실상 지원 불가 방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마사회의 지난해 매출은 3370억 원에 이르고, 지난 2000년 개장 이후 총매출은 4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광주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레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168억5000만 원과 지방교육세 67억4000만 원이었다. 그나마 레저세의 나머지 절반은 실제 경마가 진행되는 과천경마장이 있는 경기도에 내고 있다.

개장 초기부터 사행산업이라는 비판에도 화상경마장 운영은 해마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 매출 대부분이 형편이 빠듯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광주마사회는 수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파업 현대삼호중 노조 지역경제도 생각을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지난 9일 오후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오늘과 내일 또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행히 지난 9일의 조선업종 노조연대(조선노연)의 공동파업에 참가한 현대삼호중공업의 노조원 수는 극히 미미해 현재까지 공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전체 조업 인원 2만여 명 가운데 고작 80명(0.4% 수준)만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에 조합원들이 외면한 결과 대다수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14년 기준 7800만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위 10%인 67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900 원(8.27%) 인상과 성과금 지급 기준 변경,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회사의 총 부담액은 2228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현대삼호중공업은 2013년 이래 3년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조는 무분별한 파업이 회사의 생존에 도움이 될지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같은 조선 업종인 현대미포조선과 한진중공업 등 많은 조선사 노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선노연의 연대파업에 불참을 선언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보여주기 식 투쟁이나 따라하기 식 파업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만 해칠 뿐이다. 전남 서남권 최대 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의 노조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은 상관없이 '내 몫만 챙기겠다'며 파업을 계속할 경우 가뜩이나 침체 속에 허덕이는 협력사와 지역경제는 결국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無 等 鼓

정약용 하피첩

강진으로 유배돼 온 다산 정약용은 유배 7년차인 1807년 양평에 있던 부인으로부터 빛바랜 다홍치마를 받았다. 풍산 홍씨 부인이 31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 온 치마였다. 세월 탓에 다홍치마는 빛바랜 노을 색으로 변해 있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던 다산은 치마를 잘라 서첩을 만들고 '하피첩'이란 이름을 붙였다. '노을 치마에 적은 글' 이란 뜻으로 주로 두 아들에게 띄운 편지다.

하피첩에는 아들들이 평생 간직했으면 하는 삶의 원칙과 지혜가 담겨 있다. "나는 벼슬을 하지 않아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오직 두 글자의 부적을 줄 테니 소홀히 하지 마라. 한 글자는 근(勤)이요 또 하나는 검(儉)이다. 근이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때까지 미루지 않는 일이다. 의복은 몸을 가리기 위한 것이니 쉽게 해지지 않는 거친 베로 옷을 짓고, 음식은 생명만 연장하면 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봉당정치에 희생돼 유배 온 것을 경계한 듯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 집안은 선대로부터 봉당에 관계하지 않았다. 더구나 곤경에 처한 때부터는 괴롭게도 옛 친구들까지 연못에 밀어 넣고 돌을 던지는 경우를 당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명심하고 당사(黨私)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한다."

중앙 중심의 교육관과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을 당부하는 인간적인 면모도 드러난다. "나는 지금 이름이 죄인의 명부에 적혀 있으므로 너희들에게 우선은 시골집에서 숨어 지내도록 했다마는 뒷날의 계획은 오직 서울의 십리 안에서 거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들이나 손자 세대에는 과거에도 마음을 두고 경제에도 정신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피첩이 최근 열린 고서 경매에서 7억5000만 원에 국립민속박물관에 낙찰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다산의 종손이 잃어버린 후 2004년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우연히 발견돼 개인 소장으로 있다가 이번 경매에서 공공 박물관 소유가 됐다. 다산의 애틋한 가족 사랑이 담긴 국보급 유물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